광주 평생교육도시 비전·정책과제 발굴 힘쓴다

市, 중장기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국가 정책 방향·민선 8기 공약 등 반영

광주시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의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과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한다.

광주시는 4일 "국가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민선 8기 평생교육 공약과제를 반영하면서 지역 전반의 평생교육 추진체계·현황, 주민의 평생학습 요구 등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광주다운 평생교육 비전과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민의 평생학습이 일상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평생교육 정책·사업 분석 ▲광주지역 평생교육 환경 분석 ▲광주 평생교육 비전·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과업으로 광주대산학협력단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맡아 추진한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과제인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조선대산학협력단이 맡아 수행한다.

기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2년)에 포함됐던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해 차별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와 타 시·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우수사례 분석과 함께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자문과 면접조사 등을 통해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지역 평생교육 허브기관인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지난 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과 연계해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와 실태를 꼼꼼히 분석해 '기회도시 광주'다운 평생교육 진흥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모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2020-2022)로 선정됐으며 내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광주 서·남·북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자치구별 4천여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박선강 기자

섬 지역 상수도 공급대책 점검을 위해 4일 완도군 보길면 부황제를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신우철 완도군수 안내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金지사 "섬 물 부족 해소 신속 대응" 지시

완도 노화·보길도 가뭄 점검…지하수저류댐 공사 신속 완료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완도 노화도·보길도 도서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서 "가뭄으로 어려운 섬 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뒤 가뭄에 지친 주민을 위로했다.

지난 겨울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3천567가구가 사는 완도 노화도·보길도는 지난 3월10일부터 2일 급수·4일 단수를 시작했으며 가뭄 지속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2일 급수·8일 단수를 하고 있다. 인근 308가구가 거주하는 넙도도 지난 5월 16일부터 2일 급수·5일 단수에 들어갔다.

이에 전남도와 완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식수용 2ℓ 병물 17만개를 보급했고 지난 1일부터 1주일에 9천병을 공급하던 것을 1만5천병으로 늘렸다. 또한 급수 차량도 6대를 운영하는 등 주민 식수 공급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속된 가뭄으로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각 가정에 병물 등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어려운 계층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공사 중인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근본 해결을 위해 해저 관로를 통한 광역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화도와 보길도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이 올해 말 준공되면 1일 1천100t의 급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김재정 기자

민주 평당원도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정치개혁연대 내일 발기인대회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이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당원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는 "발기인과 발기인들이 모집할 회원 중 민주당원,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원들이 뭉치면 기득권세력들의 나눠먹기식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아닌 평당원 선출 출신의 위원장들도 가능하다"며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는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8-9일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1일 후보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전남자치경찰, 이동형 CCTV로 범죄 예방

'지역 맞춤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 행안부 공모 선정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4일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공모사업'에 '범죄예방 재난감시 생활민원 대응을 위한 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활용' 사업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공모사업은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와 치안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정형과 달리 농산물 수확철 도난 방지,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치매 노인 신변보호 등 시기·장소·대상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별도 전원과 통신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돼 활용이 필요한 장소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경찰관서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치안협의체를 구성해 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37대를 구입·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농산물 절도·행사장 범죄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운용 방안을 마련하면 주민 참여 활성화는 물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 증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활용 성과를 분석한 후 필요한 시기·장소에 신속하게 재배치하는 등 지역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해 주민 치안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와 지방·치안행정 협업을 활성화해 전남 특색에 맞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도시공사 '反부패경영' 사후 인증 심사 통과

지난해 이어 인증 유지…투명한 ESG 경영체계 확립 기대

광주도시공사는 4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사후 인증 심사를 전날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인증을 유지해 투명한 ESG 경영체계 확립이 기대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은 조직 내 부패 관련 시스템의 계획 수립·실행·유지·개선과 관련해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 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국제적 표준규격이다.

도시공사는 2020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최초 인증 취득 후 매년 실행기록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성과 및 부패 대응력을 평가받고 있으며 반부패·청렴 경영이 충실히 이행됐음을 인정받았다.

또한 매뉴얼 등 시스템 재정비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내부 심사가 성과로 인정받아 단 한 건의 부적합 사항 없이 사후 심사를 통과하는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사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민곤 도시공사 사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 심사 통과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김균호, '일 잘하는 서구의회 만들기' 제안

김균호 광주 서구의원이 '달라지는 서구의회, 일 잘하는 서구의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안을 제안했다.

김균호 의원은 최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 간 소통, 협치, 화합을 실천한다면 서구의회가 일할 맛 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시한 세부안은 ▲공동의정서 발간 발송 ▲학습스터디 모임 정례화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실시 등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의 삶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사안들로 정쟁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의원들 간 소통, 협치, 화합은 물론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희 기자